

공사대금 미지급·체임... 건설업계 '얼어붙은 설'

광주·전남 하도급업체 상당수 대금 못받아 작년 건설노동자 체임도 전년비 37% 급증

설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업체들이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동자들은 "임금이 체불되면서 건설노동자들이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광주전남지역 200여 건설업체에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이 전액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도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수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역 건설업체의 체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합원들의 체불 건수는 239건, 체불액은 250여 억원으로 나타났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체불액이 2011년보다 37.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이중 70% 이상이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설노조가 공개한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체불 현황에 따르면 15개 공사현장 중 10곳 가량이 정부기관을 비롯해 광주시와 합평군 등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였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303억원으로 2011년 220억원보다 80여억원이 늘어났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도 8897명에 달했다. 지역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원도급업체가 자금 침체에 빠지면서 원도급업체가 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원도급업체의 대금 지연은 하도급업체의 경영악화와 더불어 노동자의 체불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대금지급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사회 저소득층부터 각계 각층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대한민국 어디나 살기 좋은 곳을 마련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말이 헛구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노동자의 체불 임금 해결을 세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는 지난달 17일 회원사에 소속 건설 근로자들이 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근로임금의 조기 지급을 요청한 바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제조업 성장률 내리막길 서비스업에 추월 당했다

2009년 이후 최초 성장 기여도는 절반

제조업의 성장률이 지난해 서비스업에 추월당했다. 서비스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기보다 제조업의 경기악화가 더 빨랐던 탓이다. 경제성장률에 기여도 역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뒤집혔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2.4% 성장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제조업은 2.2% 성장하는데 그쳤다. 제조업 성장속도가 서비스업에 뒤쳐진 것은 2009년 이후 최초다. 당시 금융위기로 제조업이 마이너스 성장(-1.5%)을 했기 때문에 이런 외부 충격을 제하면 사실상 2001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서비스업이 제조업 성장률에 앞섰다는 것이다.

고 풀이했다. 지난해 전체 성장률(2.0%)에 대한 기여도는 제조업이 0.6%포인트였지만 서비스업은 1.3%포인트로 두 배나 됐다. 2011년 성장률(3.6%) 중 제조업의 기여도(2.0%포인트)가 서비스업(1.4%포인트)을 웃돌던 상황에서 역전된 것이다. 올해도 제조업 성장 전망은 어둡다. 계속되는 원화 강세로 수출제조업체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한은 조사결과 올해 1월 제조업체의 13.1%가 경영



제조업 성장률은 2010년 14.7%를 기록하며 'V'자 형태로 반등하는 듯했으나 2011년 7.2%로 반 토막 났다. 지난해는 다시 2.2%로 대폭 꺾였다. 이 기간 서비스업 성장률은 3.9%→2.6%→2.4%로 소폭 떨어지는데 그쳤다. 제조업의 상당수가 수출업체인데 주요 수출시장의 경제 회복이 더뎠다. 제조업 성장에 둔화했다는 것이다. 자동차, 스마트폰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의 70~80%가 국외 생산이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잡히지 않는 이유도 있다. /연합뉴스

에로사향으로 '환율'을 꼽았다. 이는 전월의 8.8%만이 환율을 말했던 것에 견주어 늘어난 것이다. 1월 현재 수출제조업체의 업황 경기실사지수(BSI)도 72로 기준점(100)을 크게 밑돈다. 이 지수는 100을 넘으면 추후 경기를 밝게 전망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100을 못 넘으면 그 반대다. 미국, 독일 등 세계 각국이 제조업 부활 경쟁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유럽 특화 TV·생활가전 삼성전자 시장 공략 나서

삼성전자가 유럽시장에 특화된 TV와 생활가전 제품으로 유럽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4일(현지시간) 모나코 몬테카를로의 그리말디 포럼에서 거래업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올해 첫 번째 대륙별 전략제품 발표행사인 '삼성구주포럼'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최신형 스마트TV와 냉장고, 오븐 등 신제품을 선보였다. 유럽인들의 취향을 고려한 디자인의 스마트TV F8500은 TV 본체와 스탠드가 일체화된 게 특징으로 유리병을 거꾸로 세워 놓은 고급스러운 조각상 형상이다. 프리미엄 디자인과 추천기능, 신규 스마트 허브 등이 갖춰진 2013년형 스마트 TV인 LED TV F8000과 F7000 시리즈도 40인치대부터 70인치대까지 폭넓게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풀HD보다 네 배 선명하고 일반 TV스피커보다 6배 높은 120와트의 스피커 출력을 갖춘 85인치형 초고해상도(UHD) TV(85S9)도 공개했다. 카운터탑 프렌치도어 냉장고(모델명 RF24)는 유럽의 주방 가구와 길이가 같고 냉동실 서랍 높이가 싱크대 라인에 일치해 일체감 있는 주방 인테리어를 완성시킬 수 있게 만들어졌다. 새롭게 출시한 빌트인 오븐(모델명 NV70F7)은 하나의 오븐 안에서 온도와 시간을 달리해 두 가지 요리를 동시에 할 수 있고, 로스팅소기 '나비미 코너클린'은 업계에서 가장 얇은 80mm의 초슬림 디자인을 갖췄다. /연합뉴스



5일 광주시와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시청에서 개최한 수출목표 160억 달러 달성 다짐대회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수출 기업인들이 수출축진을 결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3년 연속 최대 수출실적 달성 기념식 올 160억달러 달성도 결의

광주시의 3년 연속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기념하고 올해 수출목표 160억 달러 달성을 다짐하는 행사가 5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수출기업인과 시민, 무역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상공회의소가 주관했다. 기념식은 2012년도 수출성과와 2013년도 광주시 지원정책에 대한 영상보고, 2013년 160억달러 달성을 위한 수출축진 결의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박홍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해 세계경제가 대단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141억 달러를 달성해 2010년 115억 달러, 2011년 133억 달러에 이어 3년 연속 최대 실적의 쾌거를 이뤘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취득세 감면 종료에...1월 주택담보대출 1조3600억 줄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해 끝나고 '이사 비수기'가 겹치면서 올해 1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실적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 등 5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18조3589억원으로 12월보다 1조3626억원 줄어 들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1조원 이상 줄어든 데에는 정부의 취득세 감

면 정책이 지난해 12월 말로 끝난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취득세 감면 '막자'를 타고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몰려 작년 12월에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가, 세계주택이 만료되자 대출이 다시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총 10만8482건으로 집계했다. 작년 11월보다 50.6%, 전년 같은 달(10만5975건)보다 2.4%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에 월별 거래량이 전년 같은 달보다 늘어난 것은 12월이 유일하다. 은행권에서는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안을 처리하고 3월 개화에 앞서 학군 수요가 나타나 아파트시장의 거래는 급격히 줄었다.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띠지 이목이 쏠린 점, 1월이 이사 비수기인 점도 주택담보대출 감소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938.18 (-15.03)	코스닥지수 498.16 (-3.16)	금리 (국고채 3년) 2.75% (-0.01)	원·달러 환율 1087.00원 (+2.40)
---------------------------	-------------------------	------------------------------	-----------------------------

포스코 경쟁력 4년 연속 세계 1위

포스코가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선정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철강전문 분석기관인 WSD(World Steel Dynamics)는 최근 전세계 34개 대형 철강사를 대상으로 생산규모, 수익성, 기술혁신, 가격경쟁력, 원가절감, 재무건전성, 원료확보 등 총 23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포스코가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번 평가에서 7.76점(10

점 만점)을 받았다. 특히 철강산업 불황에 따라 경쟁사들의 점수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지난해 7.48점보다 점수가 올라갔다. 포스코에 이어 러시아 NLMK가 2위, 세베르스탈이 3위, 인도 JSW 스틸이 4위를 차지했다. 생산량이 가장 많은 아르셀로미탈은 22위를 기록했다. 포스코는 근로자 숙련도 및 생산성과 파이넥스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연합뉴스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건강의 기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밖의 비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화하면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뿜어져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와 한다. 말기상태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갈라지고 눈물이 흐른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앞이 뿌옇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미끄고 가끔 옆구리가 걸리거나 아프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가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